

Shell, 투자자 기만 벌금 1700억원

SEC·FAS에 1억5000만달러 납부 ... 내부통제 강화에 500만달러 투자

Royal Dutch Shell이 가체 매장량 과장 파문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의 감독기구에 벌금을 납부하고 문제를 매듭짓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Shell은 7월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2000만달러, 영국 증권서비스국(FAS)에 3100만달러 등 양국 감독기구에 총 1억5000만달러를 납부하는 데 동의했으며 양 기관도 Shell의 결정을 승인키로 했다.

Shell은 "SEC의 결론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Shell이 관련규정을 위반했으며 추후 관련법규에 따라 위반행위를 방지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벌금납부 외에 추가로 500만달러를 들여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최종 승인되면 Shell은 SEC와 FAS로부터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감독기관인 AFM과 미국 법무부, 범 유럽주식시장 유로넥스트의 별도 조사는 지속된다.

FSA의 한 대변인은 합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관련 발표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Shell의 벌금규모는 FSA가 이제까지 부과한 벌금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Shell은 2004년 1월 가체 매장량이 과장됐다는 사실을 시인한 뒤 가스와 원유의 가체매장량을 1/5 가량 축소했으며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경영진 3명을 교체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Shell은 2004년 2/4분기 순수익이 고유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6% 늘어난 37억7000만달러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4/08/02>